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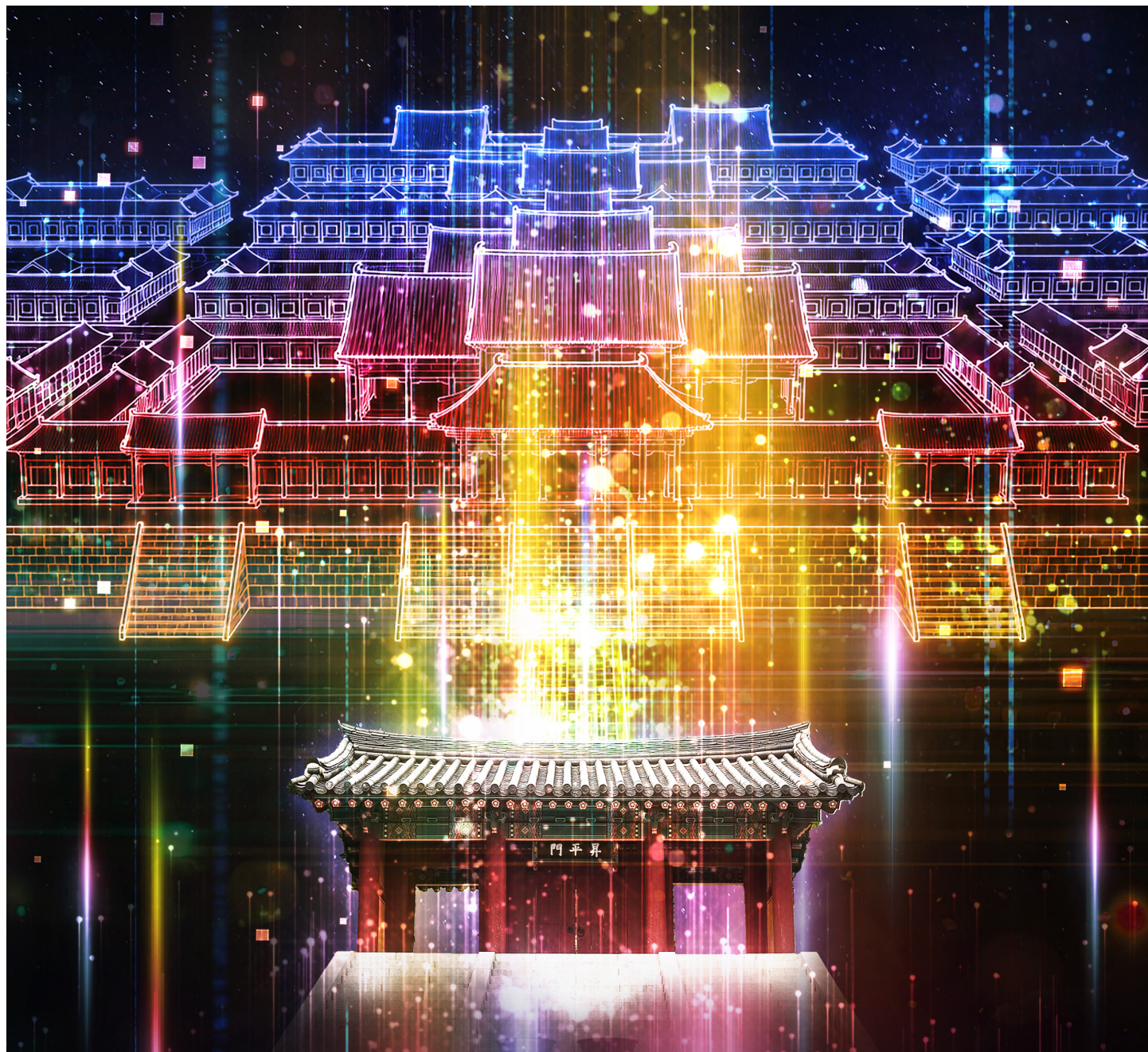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

강화소식지

강화

Ganghwa Magazine

2026 09 vol. 101



강화군청
유튜브 안내



강화군청
카카오톡 소식받기



Contents



04 기획특집
민선9기 군정 비전과 핵심과제

10 강화의 오늘, 달라진 일상
2026, 강화에 생긴 변화들

- 14 주요 군정소식
- 14 강화의 오늘과 내일을 바꿀 핵심 현안, 인천시와 힘 모은다
 - 16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강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 18 계양~강화 고속도로 첫삽... 연계 도로망까지 촘촘하게!
 - 20 민북지역 검문소, CCTV 활용 비대면 검문체계 시범운영
 - 21 알미골사거리 상습 정체, 우회도로로 푼다
 - 22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23 청소년 글로벌 어학연수, 호주·뉴질랜드에서 3주간 배움의 여정
 - 24 대남방송 피해 지원부터 평화관광까지, 정부 지원 확대 건의
 - 25 갯벌에 뿌린 건강한 종패 22톤, 어장을 다시 살린다
 - 26 강화섬쌀 '나들미·강들미', 전국이 주목
 - 27 밤이 되면, 강화의 역사가 다시 빛난다



28 소개합니다
28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
30 강화 고려궁지

32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
강화 이야기 제1편

37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강화
굴뚝이 보이던 거리, 심도직물이 있던 시절

38 강화, 예술을 품다
강화가 빛어낸 <그리운 금강산>

42 주요 의정소식
강화군의회 주요 의정활동

44 우리 마을소식
13개 읍·면 대표 소식

50 알면 든든한 강화생활

COVER STORY



표지사진
강화 고려궁지 미디어아트

'강화' 글씨 주신 분
심은 전정우



<강화> 정기구독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www.ganghwa.go.kr(강화소개/강화소식/강화소식지/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단,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시면 강화군청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선9기 군정 비전과 핵심과제

강화의 새로운 4년, 달라질 내일을 그린다

민선9기 강화군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앞으로 4년은 새로운 계획을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준비해 온 굵직한 사업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민선 9기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식

강화 남단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고, 북부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중심으로 강화의 역사문화자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

이고, 청년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 미래 성장이 군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 평화경제특구 · 국립강화고려 박물관. 민선9기가 그리는 강화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핵심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주요 사업의 현재와 앞으로 달라질 강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다.

규제의 섬에서 기회의 땅으로

강화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의 새로운 거점

강화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핵심사업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강화경제자유구역이다.

대상지는 화도면 · 길상면 일원 6.32km², 약 190만 평이다. 사업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피지컬 AI, 바이오, 복합관광 단지를 비롯해 스마트농업 및 그린바이오 산업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자유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강화가 가진 입지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있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데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까지 확충되면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자



▲ 2026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철 강화군수(오른쪽 두 번째) 모습

유구역 조성을 통해 3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전망된다.

현재는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으며, 강화군은 인천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강화가 새로운 산업과 기업,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접경의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북부에는 평화경제특구

남부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면 북부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라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준비하

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4월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해 강화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산업 · 관광형 특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강화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하면서 북한과도 가까운 독특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군은 이러한 입지를 물류와 관광, 미래 남북경제

협력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의 여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올해 강화읍·송해면·하점면·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189만7,180㎡)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높이 7m 이하의 건축·개발행위에 대해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강화군이

직접 허가할 수 있어 행정절차와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42만㎡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에 이은 규제완화다. 남부의 경제자유구역과 북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역별 특성을 살린 두 개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강화 전역의 발전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민선9기의 구상이다.

북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망도 추진 중이다. 강화터미널을 출발해 김포대학입구를 거쳐 합정·홍대·신촌·충정로·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하는 강화~서울역 M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노선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를 좁히고, 향후 영종과 강화의 연결축까지 갖춰지면 인천국제공항 접근성도 크게 달라진다. 교통망의 확충은 단순히 이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관광객 유입, 군민의 생활권 확대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된다.



▲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한 박용철 강화군수(왼쪽 네 번째) 모습

길이 열리면 강화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교통이다. 그리고 강화의 교통지도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2일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착공됐다.

인천 계양에서 검단과 김포를 거쳐 강화 선원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9.9km의 고속도로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강화군이 포함된 7공구가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갔다.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강화 곳곳으로 이어지도록 내부 연계도로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선원면 신정리~냉정리 3.67km 구간의 광역시도 60호선을 왕

800년 고려의 시간을 강화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1232년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강화를 수도로 삼은 이후 39년간, 강화는 고려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민선9기에는 이 역사적 자산을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관광 경쟁력으로 연결한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은 2023년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 계획 관련 절차에 발맞춰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 유치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려궁지와 왕릉, 산성, 돈대, 고인돌 등

강화 곳곳의 역사문화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숙박과 음식, 공연과 축제를 더한다. 관광객이 한두 곳을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며 하루 더 머물도록 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랜 시간 강화에 쌓여온 역사와 문화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자원이 되는 셈이다.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박용철 군수 모습



지역경제에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미래를 준비하는 대규모 사업과 함께 군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도 민선9기의 중요한 과제다. 강화군은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7억 원을 반영했다.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관광과 지역경제의 연결도 더욱 강화한다. 강화



에 찾아온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다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강화군 로컬 팜 빌리지(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에 참석한 박용철 강화군수(가운데) 모습

농업은 생산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강화 섬쌀을 비롯해 순무·인삼·약쑥·고구마 등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과 직거래를 확대하고, 가공과 포장,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전환도 속도를 낸다. ICT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시설을 확대해 토마토·오이 등 시설원에 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이 새로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혀간다.

강화군은 올해 첨단농업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약 20ha 규모의 시설원에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하점면 망월리 임대형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육성도 추진 중이다.

청년이 찾아오는 강화로

▼ 2026년 청년사업가 간담회 현장 사진



강화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만큼 들어온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창업·주거의 기회를 넓히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농업 지원을 이어간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뛰어난 강화의 장점을 활용해 워케이션 등 새로운 생활·정주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다.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청년의 정착과 인

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들어오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화. 산업정책과 정주정책을 함께 추진해 그 기반을 하나씩 넓혀간다.

큰 사업에서 일상의 변화까지



▲ 갑룡초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중 어린이와 반갑게 대화하는 박용철 군수 모습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광역교통망과 역사문화자원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로 이어진다. 더 많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통해 군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민선9기 강화군은 이미 시작된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업은 차근차근 현실로 이어가며 계획에 머물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것이다.

2026, 강화에 생긴 변화들

교통 · 주거 · 교육 · 농촌까지, 생활 가까이에서 달라진 강화



점심시간, 조금 더 여유롭게

- 주 · 정차 단속 유예 1시간 → 2시간
- 12:00~14:00 단속 유예
- 식당 · 상가 이용 편의 확대
- 원도심 · 전통시장 이용 부담 완화

문의 | 도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2-930-3367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한 번 더 낮춥니다

- 전 · 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 연 최대 100만 원 → 200만 원
-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 → 7년
- 강화 정착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

문의 | 도시개발과 주택정책팀 ☎ 032-930-3512

섬에서 집 고칠 때도 부담 덜도록

-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첫 지원
- 해상운송비의 50% 이내
- 최대 1,000만 원 지원
- 서도면 등 도서지역 주민 부담 완화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 032-930-3413



농어촌 에너지 생활도 더 안전하게

- LPG 배관망 39개 마을 · 약 1,700세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심 확대
- 공동저장탱크 · 매설배관 정밀 안전관리
- 편리한 공급 + 안전한 관리

문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930-3356





통학 방법이 달라도 걱정 없이

- 청소년 교통비 연 최대 24만 원
- 저소득 · 다문화 · 다자녀가정 중 · 고등학생
- 대중교통뿐 아니라 통학버스 · 기숙사 · 도보 학생까지 확대
- 통학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완화

문의 | 도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2-930-3367



강화 · 고려 · 대릉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총 294개 점포 대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 · 시설현대화 등 지원 확대

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2-930-3354

집수리도 직접 배워요

- 생활에 바로 쓰는 셀프 집수리 교육
- 도면 이해 · 전기 · 도색 · 도배 · DIY 목공
- 5주 실습형 과정
- 생활 속 작은 수리를 직접 해결하는 생활기술 교육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 032-930-3433



생활 속 변화,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주차부터 주거, 교육, 도서지역 생활, 골목상권까지
2026년 강화의 변화는 군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하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은 더 가깝게, 생활은 더 편리하게, 미래 성장기반은 더 탄탄하게”

강화의 오늘과 내일을 바꿀 핵심 현안, 인천시와 힘 모은다

강화~서울역 M버스 신설 · 남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강화군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군은 제1회 인천광역시 군수 · 구청장 정책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교통 · 농어업 · 생활 SOC · 미래 성장동력 등 7개 주요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 제1회 인천광역시 군수 · 구청장 정책회의에 참가하여 발언 중인 박용철 군수 모습



먼저 군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서울역 M버스 광역급행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통학 · 통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포함됐다. 강화 남부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김촌저수지 보수 · 보강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 확대도 주요 현안에 담았다.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비중 있게 다뤘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광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강화군은 앞으로 인천시와 각 현안별 협의를 이어가며 교통과 생활여건 개선부터 미래 성장기반 확충까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032-930-3212



‘24시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강화군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군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 허브 완성

재난 · 범죄 · 응급상황 한곳에서 대응... 군민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강화군의 재난 · 안전 대응을 한곳에서 총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5일 준공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스템 이전과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마치고, 군 전역의 CCTV와 각종 재난 정보를 연계해 범죄와 재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용철 군수(가운데) 모습



강화군의 새로운 안전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지상 5층, 연면적 1,731㎡ 규모로 조성됐다.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4~5층 복층 구조의 CCTV 관제실, 장비실, 견학실 등을 갖추고 있다.

CCTV와 재난 정보를 하나로

가장 큰 변화는 CCTV 영상과 각종 재난 정보를 하나로 연결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CCTV 영상과 위치정보, 유관기관의 재난 관련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했다.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지점 주변의 CCTV 영상과 위치정보가 군청뿐 아니라 소방 · 경찰 · 해당 읍 · 면 재난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의 재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연계해 재난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한 순간, 골든타임을 지킨다

센터에서는 ‘군민 안전 5대 연계 서비스’를 통해 강화군 전역의 CCTV 영상을 112 · 119와 재난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다.

실제 관제 과정에서 위급상황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나왔다. 석모대교 인근에서 위험 행동을 보이던 요구조자를 관제요원이 발견하고 경찰서 상황실에 즉시 알렸으며,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구조로 이어졌다. CCTV가 단순히 사건 발생 이후 영상을 확인하는 시설을 넘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발견하고 관계기관과 즉시 연결하는 안전망으로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강화군은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범죄와 재난 대응뿐 아니라 교통 · 복지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하는 ‘스마트도시 정보통합센터’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32-930-3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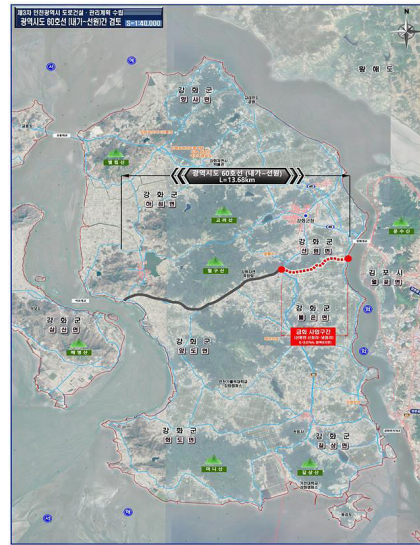
강화의 길이 바뀐다, 고속도로 시대 본격 준비

계양~강화 고속도로 첫삽... 연계 도로망까지 촘촘하게

계양~강화 고속도로 2032년 개통 목표 · 선원면 광역시도
60호선 4차로 추진 · 내부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

강화군 최초의 고속도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지난 3월 1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강화군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9.9km의 고속도로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강화군이 포함된 7공구가 가장 먼저 사업



▲ 위 이미지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에 착수하면서 고속도로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속도로만 놓는 데 그치지 않고, 개통 이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한 강화 내부 도로망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광역시도 60호선 선원면 구간이다. 선원면 신정리에서 냉정리까지 3.67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강화 내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강화군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시와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 도로망 정비 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이번 용역에서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예상되는 교통량과 이동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 내 주요 도로의 기능과 연결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강화읍과 주요 관광지,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원활하게 연결돼야 실제 교통 개선 효과도 커지는 만큼, 고속도로와 내부 간선도

로를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 도로망이 완성되면 강화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관광객 이동 편의뿐 아니라 군민의 출퇴근과 물류 여건, 지역 내 이동 편의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과 도로건설팀 032-930-3471



▲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서 인사 중인 박용철 군수 모습

접경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변화

민북지역 검문소, CCTV 활용 비대면 검문체계 시범운영

4개 검문소 대상 CCTV 활용 출입 확인
주민 · 관광객 통행 편의 개선

민북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검문소를 오갈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출입 확인체계가 시범운영 단계에 들어섰다.

강화군과 해병대2사단은 기존 대면 중심의 출입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민북지역 출입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4월부터 강화군 내 4개 민북지역 검문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 장비 구축 등 비대면 검문체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민북지역은 군사적 특성상 검문소를 통한 출입 확인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이나 농어업 등 생업을 위해 검문소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반복되는 대면 확인은 일상 속 불편으로 이어져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은 차량이 검문소에 설치된 CCTV 앞을 시속 40km 이하로 서행하면 영상장비를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차량을 매번 정차해 대면 확인을 받는 절차를 줄이면서도 안보와 출입통제 기능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



▲ 교동대교 앞 CCTV 설치 현장 확인 중인 박용철 군수

대면 검문 방식을 적용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기존 대면검문 방식을 유지한다. 군 작전상황이나 장비 오작동 등으로 대면검문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강화군 SNS와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강화군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제 이용 주민들의 의견과 운영상 문제점을 살피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 군부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대면 검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민북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검문소 통과시간을 줄이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겪어온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과 총무팀 032-930-3593



강화읍 도심길이 한결 빨라집니다

알미골사거리 상습 정체, 우회도로로 푼다

국비 112억 원 확보 · 강화대로~중앙로 직접 연결 · 2030년 이내 개통 목표

강화읍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강화대로 알미골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화군은 올해 7월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약 18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이내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휴일 · 장날이면 반복되는 도심 정체

강화읍 강화대로는 공휴일과 강화풍물시장 장날이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특히 알미골사거리와 중앙로 일원에는 강화풍물시장, 강화버스터미널, 강화군보건소, BS 종합병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현재 강화대로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알미골사거리를 거쳐야 해 도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통과 차량까지 사거리

공되면 강화풍물시장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심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차량은 알미골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강화대로에서 중앙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통과 차량과 도심 이용 차량의 동선이 분리되면서 알미골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되고, 강화읍 도심의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6년 2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오는 2027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공사에 착수해 2030년 이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알미골사거리 거치지 않고 중앙로로 바로

새롭게 개설되는 우회도로의 핵심은 강화대로와 중앙로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우회도로가 완

도로교통과 도로건설팀 032-930-3471

강화에서 키운 꿈, 타지에서도 든든하게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월 10만 원 지원 · 연 최대 120만 원 · 1인 최대 2년

강화군이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하고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관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원금은 월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으로,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분을 지원한다. 학생 1명당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이다. 휴학 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외 대학 재학생이다. 다만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형태는 관외 소재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100만 원 이하인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대상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



이 낮은 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소득이 같으면 임차보증금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화군은 그동안 장학관 운영 등을 통해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사업으로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7



강화에서 시작해 세계로, 청소년의 시야를 넓히다

청소년 글로벌 어학연수, 호주 · 뉴질랜드에서 3주간 배움의 여정



중 · 고등학생 40명 참여 · 호주 · 뉴질랜드 현지 교육 · 어학 · 문화체험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강화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관내 중 · 고등학생 40명은 지난 7월 14일 청소년 글로벌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3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연수는 외국어 학습뿐 아니라 현지 학교생활과 문화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각과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현지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에 참여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교실에서 배웠던 영어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웠다. 연수 기간에는 어학 교육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됐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 됐다.

특히 단순한 해외 견학에 그치지 않고 언어와 문화, 현지 생활을 함께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해 학생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화군은 지역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 없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어학연수 역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이 학생들의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선택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95





접경지역의 희생, 실질적인 지원으로

대남방송 피해 지원부터 평화관광까지, 정부 지원 확대 건의

대남방송 피해 지원 기준 개선 · 수도권 규제 완화 · 군사보호구역 해제 확대 · DMZ 평화관광 국비 지원 요청

강화군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화군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으로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 국비 지원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사적 필

요성이 감소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확대,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중적 제약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개선과 함께 평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 기준 개선과 각종 규제 완화, 평화관광 기반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032-930-3212

강화 갯벌에 다시 풍요를 채웁니다

갯벌에 뿌린 건강한 종패 22톤, 어장을 다시 살린다

가무락 10톤 · 바지락 8톤 · 말백합 4톤 · 8개 마을어장 살포



강화의 갯벌에 새로운 생명력이 더해졌다. 강화군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개 마을어장에 가무락과 바지락, 말백합 등 건강한 종패 총 22톤을 살포했다.

이번에 살포한 종패는 가무락 10톤, 바지락 8톤, 말백합 4톤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어촌계별 마을어장 환경과 품종별 서식 특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살포에 사용된 종패는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개체로 선별했다. 어린 패류가 새로운 어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식환경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품종별 특성에 맞춰 종패를 나눠 뿌렸다.

가무락과 바지락, 말백합은 강화 갯벌의 주요 패류 자원이다. 종패가 갯벌에 정착해 건강하게 자라면 감소한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앞으로 어업인의 생산량과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패 살포는 어린 수산생물을 어장에 공급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다. 단기간의 생산량 증가보다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어장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지역별 어장 환경과 수산자원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종패 살포와 어장 관리를 이어가며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강화 갯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물 어업관리팀 032-930-3417



강화섬쌀 '나들미·강들미', 전국이 주목

**재배 안정성과 밥맛 모두 잡으며
지역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

강화군에서 지역 재배환경에 맞게 개발한 강화섬쌀 신품종 '나들미'와 '강들미'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 대표 품종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견학과 문의도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나들미와 강들미는 강화군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지역 맞춤형 벼 품종이다. 나들미는 2023년 품종 등록을 완료했으며, 강들미는 2025년 품종보호 출원을 마쳤다. 두 품종 모두 강화의 재배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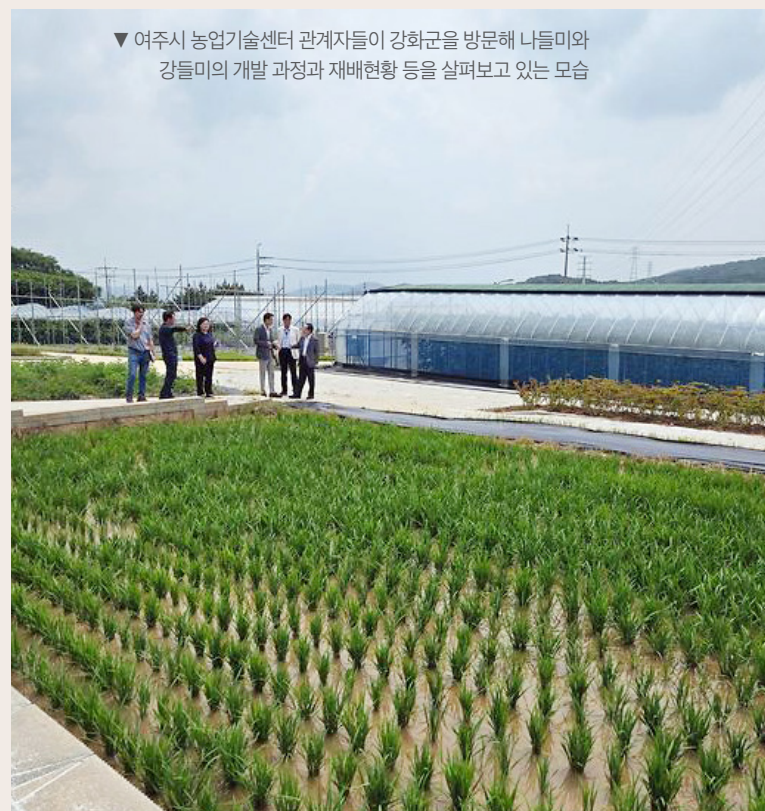
특히 강들미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강들미는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고, 추석 전 햅쌀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품종이다.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에 힘입어 재배면적도 지난해 30ha에서 올해 300ha로 10배 확대됐다.

이 같은 성과가 알려지면서 타 지역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강화를 방문해 나들미와 강들미의 개발 과정과 재배 현황, 농가 보급 및 브랜드 육성 사례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 관계자들의 견학과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강들미 전용 포장재를 개발해 올해 수확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서울 중구청과 신세계 야구단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강화섬쌀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나들미와 강들미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강화군 대표 품종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강화섬쌀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정과 농업정책팀 032-930-3373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강화를 방문해 나들미와 강들미의 개발 과정과 재배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 09. 11. - 10. 04.
19:30 - 22:00
강화 고려궁지 일원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
강화, 고려황궁의 부활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고려궁지관리소

지난 8월부터 용흥공공원과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일원에서는 강화의 근대사를 빛과 영상으로 풀어낸 상설 미디어아트가 운영되고 있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비추는 조명을 넘어 역사 이야기를 영상과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면서, 밤 산책을 즐기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9월, 그 무대가 고려궁지까지 이어진다.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궁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는 강화천도와 고려의 역사를 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시 만나는 대규모 야간 콘텐츠다. 고려궁지의 건축과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프로젝션 매핑과 레이저 연출, 인터랙티브 콘텐츠, 역사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군이 국가유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단일 문화콘텐츠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역사·예술·첨단기술을 한 공간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유산 행사와 차별화



낮에 유적지를 둘러보던 강화 관광이 밤까지 이어진다. 올여름 용흥공원에서 시작된 빛의 콘텐츠가 9월 고려궁지까지 확장되면서 강화의 역사공간이 새로운 야간관광 무대로 변신한다.

밤이 되면,
강화의 역사가
다시 빛난다

용흥공원에서
고려궁지까지...
역사와 빛이 만나는
새로운 야간관광

된다. 특히 이번 미디어아트의 의미는 한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용흥궁은 조선 철종의 역사를,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강화의 근현대를, 고려궁지는 고려왕조의 시간을 품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공간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연결하면서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빛의 역사문화 벨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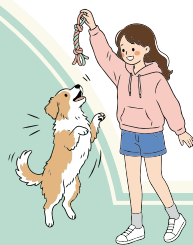
강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의 시간도 바꾼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강화 관광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낮 관광에 집중했다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음식·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사 기간에는 지역 특산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폴리마켓도 함께 운영해 미디어아트 관람객의 방문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강화의 문화유산에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익숙했던 공간도 밤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문의 |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정책팀 032-930-3892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아요!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



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달리고, 보호자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 강화에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화군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점면 부근리 강화자연사박물관 인근에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는 총면적 2,000㎡ 규모로 조성됐다.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산책만으로는 부족했던 반려견의 활동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크기에 따라 나눠 더 안전하게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의 활동공간을 분리해 서로 다른 체격의 반려견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과 함께 보호자가 반려견의 모습을 지켜보며 머물 수 있는 편의공간도 마련했다. 출입구 역시 반려견의 돌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고려했다.

반려견도 즐겁고, 보호자도 편안하게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주변 관광자원과 함께 이용하기 좋다는 것이다. 놀이터가 자리한 하점면 부근리 일대에는 강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며 강화의 풍경까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강화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새로운 여가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잠깐! 이용할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반려견 놀이터는 여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위한 기본적인 이용수칙이 중요하다. 반려견 등록 여부와 입장기준 등 세부 이용수칙은 현장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보호자는 이



용 중 반려견을 계속 살펴야 한다. 배변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고 다른 반려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의 | 산림공원과 공원팀 032-930-3468

한눈에 보는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

어디에 있나요? -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강화 자연사박물관 인근

얼마나 넓나요? - 약 2,000㎡

어떻게 이용하나요?

- 중·소형견 / 대형견 공간을 분리해 운영

무엇이 좋은가요?

- 반려견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보호자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소개합니다

강화 고려궁지

800년 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다

지금의 고려궁지는
고즈넉한 유적지로 보이지만,
약 800년 전 이 일대는 고려
왕실과 관료, 백성이 모여든
나라의 중심이었다.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고려 조정은 이듬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겼다. 강화는 개경과 가까우면서도 바다로 둘러싸여 몽골 기병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전국 각지의 세곡과 물자를 배로 운반하기에도 유리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방어와 물류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수도였던 셈

이다.

고려가 강화에 머문 기간은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강도시대’라고 부른다. 국왕과 왕족, 관료와 백성들이 옮겨오면서 강화에는 궁궐과 관청, 사찰과 민가가 들어섰고 강화읍 일대는 수도의 모습을 갖추었다.

으로 전해진다. 당시 궁궐과 관청이 훨씬 넓은 강화읍 일대에 자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화에는 정궁뿐 아니라 행궁·이궁·가궐 등 여러 궁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고려궁지’라는 한 장소를 넘어, 당시 강화읍 일대 자체가 수도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1232 → 1270

강화천도에서 개경 환도까지,
고려가 강화에서 보낸 39년의 ‘강도시대’

개경을 강화에 다시 그리다

강화의 궁궐은 개경의 궁궐을 본떠 조성됐다. 궁궐 뒤의 산을 개경의 송악산과 같이 ‘송악(松岳)’이라 불렀고, 정문에는 ‘승평문(昇平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궁지의 울타리가 당시 궁궐 전체였던 것은 아니다. 승평문은 현재 고려궁지보다 남쪽, 지금의 용흥궁 입구 부근에 있었던 것

고려에서 조선으로, 한 터에 겹겹이 쌓인 역사

1270년 고려가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강화의 궁궐은 몽골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허물어졌다. 그러나 이곳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옛 고려궁터에 강화유수부와 행궁 등이 들어섰다. 지금 고려궁지에서 볼 수 있는 명위헌과 이방청도 조선시대 강화의 행정 중심지였던 흔적이다. 고려의 궁궐터 위에 조선의 역사가 다시 쌓인 셈이다.

2026년, 빛으로 다시 만나는 고려궁지

올가을 고려궁지는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현재 고려궁지 일원에서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펼쳐지고 있다. ‘강화천도’와 고려의 역사를 주제로, 오래된 유적의 공간 위에 빛과 영상, 디지털 기술을 더해 800년 전 고려의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왕실 기록을 지키던 외규장각

1782년 정조는 왕실의 중요 서적과 의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려궁지에 외규장각을 설치했다.

하지만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외규장각은 불탔고, 의궤를 비롯한 왕실 도서가 프랑스로 반출됐다. 이 가운데 외규장각 의궤 297책은 2011년 국내로 돌아왔다.

고려의 수도에서 조선의 행정 중심지로, 다시 왕실 기록을 보관하던 공간까지. 고려궁지는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곳에 겹쳐 있는 장소다.

낮에는 고려와 조선의 흔적을 따라 걷고, 밤에는 미디어아트로 되살아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익숙한 유적이 빛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고려궁지는 단순히 바라보는 문화유산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역사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때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고려궁지. 지금은 800년의 시간을 품은 채, 빛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궁지,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강도(江都) : 몽골 침입기에 고려가 강화로 천도한 뒤 사용한 수도 명칭
- 송악(松岳) : 개경의 송악산을 본떠 궁궐 뒤 산에 붙인 이름
- 승평문(昇平門) : 강화 고려궁궐의 정문. 현재 고려궁지보다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외규장각(外奎章閣) : 정조 때 왕실의 중요 서적과 의궤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왕실 도서관

제1편

강화 이야기

문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1950년대 이후 생활상을 강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담아낸 구술집 중 '강화군의 농협맨 고상협' 편을 발체 · 편집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

새우를 털던 터진개 나루

1935년 불은면 오두리에서 태어난 고상협 선생의 기억 속에는 이제는 보기 어려운 강화의 풍경이 오롯이 담겨 있다. 염하를 오가던 배와 새우를 삶던 마을, 짚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농협이 들어서며 달라져 간 농촌까지.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 한 시대의 강화를 만나게 된다.



터진개 나루, 마을의 삶이 시작되는 곳

오두리 안산마을에서 걸어서 십여 분 내려가면 염하 포구인 터진개 나루가 있었다. 지금은 조용한 포구지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삶의 터전이었다.

"오두리에 배를 대는 선창인 염하 포구가 있었어. 터진개 나루라고 불렀는데 한자로는 탁포(挾浦)라고 썼지. 안산마을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어. 염하의 터진개가 동네 사람들에게는 돈벌이 장소였어."

마을 사람들은 염하 갯벌에 말뚝을 박고 새우그물을 설치했다. 밀물에 들어온 새우는 썰물과 함께 그물에 남았고, 작은 전마선을 타고 나가 거두어왔다. 그렇게 잡은 새우는 집으로 가져와 큰 솥에

삶고, 멍석 위에 널어 바짝 말렸다.

"그걸 자루에 넣어서 땃돌에 내리치면 껍질이 벗겨져. 그걸 인천 청관에 가지고 가서는 중국집에 팔았어."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는 당시 강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논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 거지."

새우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논을 사고 자녀를 키우며 집안을 일으키는 밑천이었다. 어장 하나 값이 논 천 평과 맞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새우잡이는 중요한 생업이었다.





바다가 길이던 시절

터진개 나루는 새우만 실어 나르던 곳이 아니었다.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이 짠 가마니와 산에서 해 온 뿔나무를 배에 싣고 인천과 서울 마포로 향했다. 뿔감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을 사람들은 '시선(柴船)배'라고 불렀다.

"겨울에는 가마니도 싣고, 뿔나무도 싣고 인천도 가고, 마포도 가고 그랬지."

강화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바다가 곧 길이었다. 사람도, 물건도, 소식도 모두 배를 통해 오갔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터진개 나루였지만, 당시에는 강화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를 이어주던 중요한 관문이었다.

짚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

고상협 선생의 어린 시절은 자연과 함께했다.

"집 뒤에는 밤나무, 앞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 같은 게 있어서 그것들이 열릴 때면 실컷 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수영을 하고, 겨울이면 눈에서 썰매를 탔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까지는 직접 만든 짚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가장 오래 머무는 기억은 운동회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누나 손에 자랐던 그는 운동회 날 도시락 없이 혼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삶은 달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잊히지 않아."

▼할아버지 생전에 촬영한 고상협 선생 가족사진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삶은 달걀 하나와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난했던 시대였지만, 이웃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갔다.

강화를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어린 시절을 보낸 오두리를 떠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다녔다. 한국전쟁으로 학교를 옮겨야 했던 일도 있었지만, 밤늦게까지 공부한 끝에 인천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는데 운동장 끝 게시판에 내 접수번호 7번이 딱 있는 거야. 그때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했다. 좌석이 없으면 화물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기도 했다.

"그때는 화물칸에 사람도 태워 줬어. 자리가 없으면 거기라도 타고 서울을 다녔지."

차창 밖으로는 주안의 넓은 염전이 펼쳐졌고, 화교들이 농사짓던 밭과 소사의 복숭아 과수원이 이어졌다. 지금은 도시로 변한 풍경이지만, 선생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있다.

농협이 들어서며 달라진 강화

1962년, 대학을 졸업한 고상협 선생은 농협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30여 년 동안 강화군 곳곳에 단위농협이 자리 잡는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했다.

"1970년대 전후로 농촌운동 업무를 맡게 됐어. 먼 단위로 농협이 생겼지. 신축 건물을 만들고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교육하는 업무가 내 일이었어."

고상협 선생은 강화의 여러 면을 오가며 주민들을 만나고, 새로 문을 여는 농협을 준비했다. 농협이 생기면서 농촌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새우를 삶아 팔고, 가마니를 배에 싣고 마포로 향하던 시대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이는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선생이 있었다.



변해도 잊히지 않는 것들

아흔을 넘긴 지금도 계산할 일이 생기면 고상협 선생은 계산기보다 먼저 주판을 찾는다. 오랫동안 손에 익은 주판알을 튕기다 보면 오래전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한다. 집 뒤의 밤나무와 앞마당 감나무, 개울에서 뛰놀던 아이들, 짚신을 신고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 터진개 나루에서 새우를 삶던 사람들, 시선배를 타고 인천과 마포를 오가던 이웃들...

세월이 흐르면서 풍경은 바뀌고 길은 넓어졌지만, 기억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다. 고상협 선생은 인터뷰 말미에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꺼낸다.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어머니가 해결해 주는 것 같아 지금도 어머니를 불러."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인다.

"사노라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강화

굴뚝이 보이던 거리, 심도직물이 있던 시절



▲ 옛 심도직물 일대와 강화읍 거리 풍경. 공장 굴뚝과 상점, 자전거와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당시 강화읍의 활기찬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한때 강화읍 거리에는 직물공장의 굴뚝과 기계 소리가 일상의 풍경처럼 자리했다. 1960~70년대 강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물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고, 심도직물·평화직물·이화견직·조양방직 등 크고 작은 공장들이 강화의 산업을 이끌었다.

그 중심에 있던 곳이 심도직물이다. 1947년 창업한 심도직물은 1970년대 역직기 210대와 직원 1,200여 명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컸다. 공장을 오가는 노동자와 물건을 실은 자전거, 상점을 찾는 사람들로 주변 거리도 늘 북적였다. 이러한 풍경은 강화의 직물산업이 가장 활기를 띠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월이 흐르며 공장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다. 현재 용흥공공원에는 당시 심도직물 굴뚝의 일부가 보존돼 있어, 강화가 직물산업으로 활기를 띠던 시절을 지금도 기억하게 한다.

사진 한 장 속 거리 풍경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시간은 여전히 강화의 역사로 남아 있다.



▲ 옛 심도직물터에 남은 심도직물 굴뚝의 모습

서쪽 끝 강화에서 태어난
두 예술가가 그려낸 동쪽 끝 금강산

강화가 빚어낸 〈그리운 금강산〉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은 강화도가 주재한 노래다.
인천 강화 출신 한상억 시인이 노랫말을 쓰고,
역시 강화 태생인 최영섭 선생이 곡을 붙였다.
가장 한국다운 가곡을 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
최영섭 선생이 지난 6월 29일 9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경인일보 정진오 국장



▲ 강화도 평화전망대 망배단과 그리운 금강산비 전경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금강산’을 하늘
에서나마 늘 가까이할 수 있게 된 게 아
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운 금강산>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관계 복원을
염원하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
음을 울리고 위로해 왔다. 한반도의 끊어
진 허리, 그 동쪽 끝 금강산의 노래를 서
쪽 끝 강화도 출신 시인과 작곡가가 힘을
합쳐 만들었다니 공교롭다는 생각을 지
울 수 없다.

최영섭 선생은 나고 자란 강화도와 인
천 사랑이 각별했다. 인천이라면 크고 작
은 데를 가리지 않고 가진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2000년에 출간한 강화군 ‘삼산
면지’에 실린 <삼산면가>에도 선율을 달
았다. 인천 도심에서는 <부평구민의 노
래>와 <계양구민의 노래>를 만들었다.
2026년 7월부터 제물포구로 바뀌면서
행정구역 명칭으로는 더 이상은 쓸 수 없
게 된 <동구 구민의 노래> 역시 그의 작

품이다.

‘푸르른 소나무와 유서 깊은 화도진은
우리의 자랑’으로 시작하는 <동구 구민
의 노래>는 조병화 시인이 작사했다. 조
병화 시인의 ‘시심(詩心)’이 시작된 곳 또
한 인천이다. 그의 첫 번째 시 <소라>가
인천 월미도 바닷가에서 나왔고, 그의 두
번째 시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추억>
역시 인천에서 빚어졌다. 그 자리에 여덟
살 아래 최영섭이 있었다. 젊은 조병화는
소주병을 주머니에 차고, 병나발을 불며
‘잊어버리자고/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
이/하루/이틀/사흘’을 읊었고, 나이 어린
최영섭은 받아 적은 뒤 곡을 붙였다. 가곡
<추억>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최영섭 선생은 1929년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동
구의 창영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때부
터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 인천중학교에



인천중학교 강당에
그랜드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그 피아노는 언제나 최영섭의
독차지였다.
음악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강당의 피아노 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최영섭에게만은 허락해 줄
정도로 그의 재능은 뛰어났다.



◀ 양도면 천상병 귀천공원 내
세워진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진학한 뒤 음악적 소질을 좀 더 갈고닦았다.

그러던 1945년 서울 경복중학교로 전학했다. 인천에서 통학하던 그 시기,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외아들이었던 그가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자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다. 하지만 어머니 신수례(1908~2003) 여사만은 그 길을 응원해 주었다. 1947년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그의 첫 작품인 가곡 <그리운 옛 봄>을 작곡했다. 이 곡부터 시작해 그가 평생 일궈낸 작품들에는 강화에서의 어린 시절 보고 느낀 감흥이 녹아 있을 터이다.

최영섭 선생은 <그리운 금강산>을 1961년에 썼다. 한국전쟁 11주년을 맞아 KBS의 청탁을 받아 만들게 되었다. 인천 송의동 자택에서 작업했다. 역시 강화 출신인 열네 살 위 한상억 시인의 시에 해방 후 금강산을 구경하고 온 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까지 녹여 냈다.

<그리운 금강산>은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기점으로 국민가곡으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인기 작품의 반열에 들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 공연에서는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며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선율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리운 금강산>의 작사가 한상억 선생은 1915년 9월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대흥마을에서 태어났다. 1930년 길상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인천공립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해방 이후 역시 강화 출신 김차영 시인과 함께 <시와 산문> 동인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51년 한국문인협회 인천지부 위원장, 한국예총 경기지부장(1963년) 등 인천 문화계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한상억 선생은 1987년 아들이 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이민을 갔다. 그는 1992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한 달여 전에 고향 인천을 찾았다. 그때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만든 작곡가 최영섭 선생도 만나 보았다. 강화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둘러보고 미국으로 돌아간 게 마지막이었다.

<그리운 금강산>은 많은 이들에게 2절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3절까지가 원래의 작품이다.

‘기괴한 만물상과 묘한 총석정 /
풀마다 바위마다 변함없는가 /
구룡폭 안개비와 명경대 물도 장안사 자고향도
예대로인가 /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 몇몇 해 /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이 3절은 2014년 7월, 한상억 선생의 고향 강화 양도면에 세워진 노래비에 새겨졌다. 최영섭 선생의 도움으로 이 3절을 기록할 수 있었다. 곡을 처음 만들 때, 최영섭 선생이 받은 원고에는 3절까지였는데 방송 분량에 맞게 줄이다 보니 2절까지만 쓰게 됐다.

<그리운 금강산>은 3절까지 이어서 읽고 노래해야만, 만이천 봉에서 비로봉으로, 다시 만물상과 총석정, 구룡폭포와 명경대로 내려오는 금강산 구석구석을 살피는 온전한 작품이 된다.

또 한 가지, <그리운 금강산>의 첫 구절이 흔히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주재(主宰)로 해야 한다고 작곡가 최영섭 선생은 강조해 왔다. 아무리 ‘시어(詩語)’라고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제’는 낯설 수밖에 없다. ‘주재런가’가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영섭 선생 사거(死去)를 계기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앞장서서 왕래 끊긴 지 오래인 금강산에 <그리운 금강산> 기념비라도 하나 세우면 어떨까.





의정소식

Sep

2026. Vol.101

01

제10대 강화군의회 개원... '힘찬 의정활동 시작'



강화군의회는 7월 1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최종찬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황성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강화군의회 의원 전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최종찬 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서 군민의 행복과 강화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황성주 부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2

강화군의회, 의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강화군의회는 7월 9일 제10대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강화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실제 회기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사례 중심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강화군 재정 여건과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03

강화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진행



강화군의회는 7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강화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3건의 군정 현안과 직결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강화군의회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 Feed 우리 마을소식

나눔과 행복으로 따뜻한 일상을
채워가는 강화군 읍·면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강화읍



강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성 가득 '우리동네 영양살피기'

강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20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동네 영양살피기'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영양살피기'는 2025년부터 2주마다 이어오고 있는 협의체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닭곰탕과 장아찌를 직접 조리해 반찬 나눔존을 채웠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직접 재배한 감자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 청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원면



선원면 주민자치회, 제1기 출범 -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자치의 새로운 시작 -

선원면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민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6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 결과 총 30명의 위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지난 7월 15일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에서 열린 '제1기 강화군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선원면 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불은면



불은면, 시원한 물김치에 이웃사랑을 담다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13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물김치를 담그고 떡과 함께 포장한 뒤,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 물품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도 살피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

길상면



길상면, 맞춤형 집수리로 더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저소득 4가구를 대상으로 샹시 교체와 도배·장판 등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15가구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무더위 속 건강과 안부도 함께 살폈다.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도면



화도면, 나누고 즐기며 함께한 '사랑나눔 일일찻집'

화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제3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일일 찻집과 함께 주민들이 기부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바자회가 진행돼 나눔과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더했다.

에어로폰과 고고장구, 라인댄스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재능기부 공연도 이어져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

양도면



새마을남녀지도자, 사랑의 김치로 전한 여름 안부

양도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김치를 담가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완성된 김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부도 함께 살폈다.

내가면



내가면, 정성 가득 닭백숙으로 어르신 건강 챙겨

내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닭백숙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직접 닭백숙 200인분을 정성껏 조리해 각 마을의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도 함께 살피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내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 나눔과 환경정화,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점면



하점면, '주간 약 달력' 들고 복지사각지대 찾아간다

하점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주간 약 달력'을 제작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약 달력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면



양사면, 아이들 웃음과 팔빙수로 세대를 잇다

양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12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세대공감 팔빙수 데이'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팔빙수를 대접한 가운데, 양사초등학교 학생들도 교산2리와 북성1리 마을회관을 찾아 율동과 노래 공연을 선보이며 세대 간 따뜻한 교감을 나눴다.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도 함께 진행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폐자원 순환사업을 알리는 등 즐거움과 유익함을 더했다.



송해면



폭우도 막지 못한 송해면민의 열정

제18회 송해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 면민 등 800여 명이 함께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당초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는 많은 비로 인해 송해초등학교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생략됐지만 초청 가수 공연과 마을별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면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교동면



교동면, 올해 첫 벼 베기 “극조생종”으로 강화섬쌀 수확 본격화

교동면에서 올해 첫 벼 베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수확철의 막을 올렸다.

이번에 수확한 ‘극조생종’은 지난 5월 5일 모내기를 시작해 약 95일 만에 수확한 조생종 품종으로, 수확 후 후작 재배가 가능해 농가 소득과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조생종’은 은은한 누룽지 향과 찰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반찰미 품종이다. 이번 첫 수확을 시작으로 교동면 들녘 곳곳에서 황금빛 벼 수확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산면



삼산면 새마을부녀회, 봄꽃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삼산면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랑의 꽃 판매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긴기아난, 멜로디움, 안시리움 등 약 30여 종, 150여 개의 화분이 전시돼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다양한 봄꽃을 둘러보고 구매하며 이웃돕기에 뜻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꽃을 매개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동참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서도면



서도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사랑의 냉면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서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8월 3일 지역 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냉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포장 냉면을 준비해 약 260명의 주민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냉면을 배부하며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가졌다.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서도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알면 든든한 강화생활

한눈에 보는 군민혜택

강화군민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지원과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임신 · 출산 · 육아

출산 · 양육 지원

대 상	강화군 거주요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지 원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 원 + 양육비 + 생일축하금
문 의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가족복지과 ☎ 032-930-3588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대 상	강화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 원	엽산제 · 철분제, 임신 초기검사, 모유수유 상담 · 유축기 대여 등
문 의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930-4045, 4067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 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 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문 의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930-4045, 4067

아동 · 청소년	HPV 예방접종 지원
대 상	2014년생 남성 청소년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지 원	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문 의	강화군보건소 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 032-930-4076

청년 · 창업	창업 경영지도 · 컨설팅 지원
대 상	강화군민 등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지 원	창업절차 · 특허 · 세무 · 회계 · 홍보 · 판로 · AI 활용 등 분야별 1:1 전문가 컨설팅
신 청	2026년 11월까지 상시 / 방문 · 이메일 · 홈페이지 접수
문 의	강화군 창업 · 일자리센터 창업팀 ☎ 032-934-3088

어르신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 상	65세 이상 강화군민
지 원	스케일링 ·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관리
문 의	강화군보건소 치과실 ☎ 032-930-4028

어르신	효행수당 지원
대 상	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3대 가족
지 원	월 10만 원
문 의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가족복지과 노인복지팀 ☎ 032-930-3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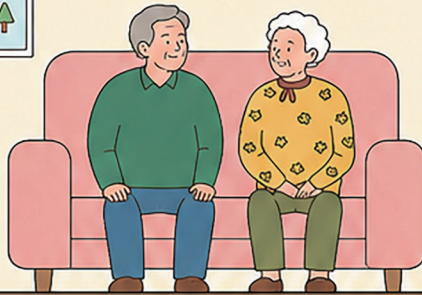
농업인	밭 농작업 대행 지원
대 상	고령농 · 독거 여성농업인 · 5년 미만 귀농 · 귀촌자 등
지 원	농기계와 작업인력을 활용한 밭 농작업 대행
문 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 032-930-4174~4179

농업인	농업미생물 공급
대 상	관내 농업인 등
지 원	광합성균 · 유산균 · 고초균 ·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 공급
문 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 032-930-4159

모든 군민	강화 주요 관광시설 무료입장
대 상	강화군민
지 원	화개정원 · 마니산 · 함허동천 · 평화전망대 · 강화역사박물관 · 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 무료입장
이 용	입장 시 신분증 등 강화군민 확인서류 제시

※ 지원대상 및 세부 기준, 이용기간 등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담당부서 또는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통합돌봄으로, 내 집에서 건강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생활하기가 걱정돼요.
- ✓ 식사·청소·외출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 ✓ 거동이 불편하고 집 안에서 넘어질까 불안해요.
- ✓ 기존에 돌봄을 받기 어렵고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지 모르겠어요.

주요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건강 돌봄

- 1 방문진료
- 2 재택의료센터
- 3 방문간호·복약·건강관리
- 4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상생활 생활 지원

- 1 식사 지원
- 2 가사 지원
- 3 이동 지원
- 4 안부 확인



요양 퇴원 후 회복

- 1 방문요양·목욕·간호
- 2 복지용품 지원
- 3 요양·복지서비스 연계



주거 안전한 집

- 1 낙상 예방
- 2 주거 환경 개선



※ 상담 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여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종류 및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상담·신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32-930-3030)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및 문의처

읍·면	전화번호
강화읍	032-930-4199
선원면	032-930-4415
불은면	032-930-4423
길상면	032-930-4436
화도면	032-930-4248
양도면	032-930-4254
내가면	032-930-4465

읍·면	전화번호
하점면	032-930-4473
양사면	032-930-4482
송해면	032-930-4493
교동면	032-930-4303
삼산면	032-930-4314
서도면	032-930-4522

